

번호: PO-EM-013				
제 목	일부 산업장 남성 근로자들의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를 이용한 위험 유해 음주 유병율과 직무스트레스와의 연관성 The Prevalence of Hazardous Harmful Drinking and the Relationship with Job Stress in Male Industrial Workers			
저 자 및 소 속	정유희1), 최재욱2), 이은일2), 이준영2), 김린3) 1)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2)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3)고려대학교 정신과학교실 Youhee Jung1), Jaewook Choi2), Eunil Lee2), Juneyoung Lee2), Reen Kim 3) 1)Korea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2)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3)Korea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Department of Psychiatry			
분 야	환경의학 [산업보건]	발 표 자	발 표 형 식	포스터
<p>목적: 근로자의 음주는 사고 발생이나 결근 등으로 인한 생산성 감소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일반인의 음주와 다른 차원에서 해석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의 산업장 근로자들의 음주문제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및 정신 건강에 초점을 맞추어 산업장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가 음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시도되었다.</p> <p>방법: 안산 지역 시화 반월 공단 40여개 사업장의 생산직과 사무직 남성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2004년 11월 24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수거된 설문지는 총 359부였으며 결측값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의 67부를 제외한 292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KOSS(Korean Occupational Stress Scale 한국형 직무스트레스 측정도구), PWI-SF(Psychosocial Well-being Index-Short Form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측정도구), AUDIT(Alcohol Use Disorders Identification Test) 등 네가지 항목으로 구분된 구조화된 자가기입식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자료 처리는 SPSS Windows Version 12.0을 이용하여 단변량 분석과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p> <p>결과: AUDIT를 이용한 위험 유해 음주의 선별기준을 한국적 특성에 맞게 제시한 기존 연구의 12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험 유해 음주의 유병율은 45.5%였다. 위험 유해 음주의 정도가 일반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AUDIT 점수를 위험 유해 음주에 대한 기준 점수로 이분화하여 단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평균 근무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P=0.009$), 흡연을 하는 경우($P=0.001$),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아질수록($P=0.001$) 위험 유해 음주군에 속하는 경우가 높게 나타났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P=0.103$)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정도에 따라서 위험 유해 음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p> <p>위험 유해 음주의 발생과 관련된 위험요인들의 설명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 및 직업관련 특성, 직무스트레스 점수 및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점수 등을 독립변수로 하고 위험 유해 음주 유무를 종속변수로 하여 변수 선택법에 의한 다중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위험 유해 음주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 기혼인 경우($OR=1.691$), 근무 시간이 11시간 이상인 경우($OR=1.732$), 흡연을 하는 경우($OR=2.298$), 직무스트레스가 하위 25%에 속하는 경우에 비해 하위 50%에 속하는 경우 ($OR=1.105$), 상위 50%에 속하는 경우($OR=1.724$), 상위 25%(고스트레스군)에 속하는 경우($OR=4.719$) 등으로 나타났다.</p> <p>결론: 본 연구결과 산업장 근로자들의 위험 유해 음주 유병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위험 유해 음주는 근로자들의 흡연, 장시간의 노동, 직무스트레스 등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향후 산업장 근로자들의 음주문제 대책을 산업보건 관리 측면에서 수립할 필요가 있고 이에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동시에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함을 제언하는 바이다.</p>				